

〈태원지〉 서사분석에 의한 국적 규명

황미숙*

— <차 례> —

1. 서론
2. <태원지> 국적 재고의 입론
3. <태원지> 서사의 특징
 - 1) 역사적 사실과 환상적 허구의 교직 서사
 - 2) 종횡의 신묘한 책략이 돋보이는 서사
4. 조선에서의 <태원지> 수용
5. 결론

〈국문초록〉

〈태원지〉는 원 말, 천명을 받은 임성이 호걸을 모아 대사를 도모하다가 대해에 표류하게 되고, 요괴를 만나 고난을 겪지만 종횡의 신술로 제거한다. 그리고 태원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상륙하여 태원 오국을 평정하고 대홍을 창업하여 황제에 즉위하는 창업서사이다. 〈태원지〉는 국적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작품이다. 『중국소설회보본』 <소서>에 〈태원지〉 서명이 기록되어 있어 중국소설로 여겨졌지만, 내용 분석을 통해서 우리 고소설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우리 고소설에는 역성혁명을 성공시킨 창업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없는 점과 탈중화의식을 보이는 〈태원지〉는 1762년 이전 작품이므로 조선에서 상대적 세계관이 담론으로 작동하던 시기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태원지〉의 국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고전소설총목제요』에 실려 있는 <신무전>이라는 작품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태원지〉 서사의 특징과 유사한 점은 〈태원지〉가 우리 고소설이 아닌 중국소설이며, <신무전>을 번역 내지 번안한 작품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조선에서 중국소설인 <신무전>이 유입되고 <태원지>로 번역되었다면, 이는 영조의 주원장에 관한 높은 관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영조는 즉위하는 과정에서 정통성

* 이화여대 박사과정 수료

의 시비로 많은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영조는 강력한 군주체제를 지향했던 명 태조에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로 영조는 주원장이 창업을 이루는 과정을 다룬 <영렬전>, 창업 이후 명의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남계연담>에 애착을 보였고, 주원장이 명을 창업한 역사적 사실을 환상적 허구로 변형한 <신무전>을 <태원지>로 번역하도록 하는데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창업서사, 역사적 사실, 환상적 허구, <신무전>, 영조

1. 서론

<태원지>는 원 말, 영웅의 기상을 가졌고 천명을 받은 임성이 관군에게 꺾박당하자 배로 피화하였다가 대해에 표류하게 되는데 중황의 신기묘책에 힘입어 요괴를 물리치고 태원에 이르러 존속하던 오국을 정벌하고 대흥을 창업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태원지>에 관한 기존논의는 작품의 국적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조희웅, 박재연, 민관동¹⁾은 <태원지>가 『중국소설회모본』 <소서>에 서명이 거론되어 있는 까닭에 중국 작품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김진세²⁾가 <태원지>의 내용 가운데 조선 예찬,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묘사, 혼인의 법도와 같은 화소는 조선인이 가질 수 있는 정서이므로 <태원지>가

1) 조희웅, 『낙선재본 번역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62·63 합집, 국어국문학회, 1973, 266~267쪽

박재연, 『중국소설회모본』, 강원대 출판부, 1993, 164쪽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한글 번역문제』, 『고소설연구』 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445쪽

2) 김진세, 『태원지고: 이조후기 사회인들의 Utopia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논문집』, 1·2합집, 영남대학교, 1968, 13~14쪽

우리 고소설임을 밝힌 이후, 임치균³⁾은 낙선재에 보관되어 있던 <태원지>가 『중국소설회보본』의 <태원지>와 동일한 것인지 의심하면서 교육서로 활용되었던 『동몽선습』의 내용 가운데 중국역대사략 부분이 수용되어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고소설임을 주장하였다. 임치균의 논의 이후 <태원지>의 국적은 우리 고소설인 것으로 동의되는 형편이다. <태원지>가 조선 후기 작품이라는 전제가 어느 정도 확립되는 분위기에서 이후의 논의는 작품의 세계관에 반영되어 있는 당대의식을 밝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홍현성⁴⁾은 <태원지>에서는 ‘해양 표류’와 ‘태원 정복’이라는 사건을 통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화이관이 부정되고 있으며, 김용기⁵⁾는 <태원지>가 인물 출생담을 가지며 왕조교체 서사를 다루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고소설일 가능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태원지>의 서사적 지향점은 왕조교체에 있으며 해양 표류담은 이계에 대한 탐험이라는 문학적 환상의 의미와 더불어 중원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임치균⁶⁾은 <태원지>의 상대적 공간 인식은 조선 후기 북학파의 상대주의적 세계관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았다. 허순우⁷⁾는 <태원지>에는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기를 맞아 주체와 중심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지식인들의 고민 즉 학습되어 온 중화주의 사고와 전환기의 대세적 사고인 상대주의적 세계관의 틈바구니에서 내부적인 균열

-
- 3) 임치균, 『태원지 연구』, 『고전문학연구』 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359~366쪽
 - 4) 홍현성, 『태원지 시공간 구성의 성격과 의미』, 『고소설연구』 2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312~315쪽
 - 5) 김용기, 『태원지의 서사적 특징과 왕조교체』, 『고소설연구』 34집, 한국고소설학회, 2012, 192~210쪽
 - 6) 임치균, 위의 논문, 378쪽
 - 7) 허순우, 『중화주의 균열이 초래한 주체의식의 혼란과 극복의 서사: 태원지』, 『고소설연구』 33집, 한국고소설학회, 2012, 244~245쪽

이 엿보인다고 보았다. 김정미⁸⁾는 <태원지>는 중원에서는 타자였던 존재가 태원에서는 선주민을 타자화하는 서사라고 보았다. 이를 이어 이명현⁹⁾은 <태원지>는 중원에서 타자에 불과했던 임성 일행이 태원에서는 주체로 변모하지만 태원에 적합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지 못하고 중원을 모방하는데 그치고 말아 진정한 상대주의적 세계관이 결여되어 있는 작품으로 보았다.

<태원지>가 조선시대 작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들은 조선 예찬,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서술, 혼인의 법도, 동몽선습의 수용, 인물출생담, 그리고 왕조교체 서사방식 등이다. 그리고 <태원지>에 조선후기의 화이론에서 벗어난 상대적 세계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점이 강조되었다. <태원지>의 국적 문제는 우리 고소설로 확정할 수 있는 여러 유의미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태원지>가 우리 고소설이라는 주장 가운데 의문이 드는 부분을 짚어 보고, <태원지> 서사의 특징과 『중국고전소설총목제요』에서 찾은 <신무전>에 관한 설명과의 유사점을 고찰함으로써 <태원지> 국적 문제를 재고하고자 한다. <태원지>의 국적 규명을 재고하는 까닭은 <태원지>가 갖는 영웅소설의 특징 때문이다. 영웅소설의 형성기로 여겨지는 18세기 중반에 존재하는 <태원지>가 우리 고소설이라면 형성기 영웅소설로서의 특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고, 중국 작품이라면 형성기 영웅소설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⁰⁾

8) 김정미, 「타자의 서사, 타자화의 서사, 홍길동전」, 『고전문학연구』,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204~207쪽

9) 이명현, 「태원지의 표류와 정복에 나타난 타자인식」, 14집, 『다문화콘텐츠연구』,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3, 292~294쪽

10) 본 논의에서는 장서각 소장 낙선재 본 <태원지>를 임치균이 교주한 <태원지>(2010)를 텍스트로 삼았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영이록·태원지』

2. 태원지 국적 재고의 입론

임치균¹¹⁾은 『중국소설회모본』에 언급된 <여범>은 우리나라 서책임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국소설회모본』에서 언급한 모든 서명이 반드시 중국 국적은 아닐 것이라고 여기고 <태원지>도 우리 고소설이지만 『중국소설회모본』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김경미¹²⁾는 <여범>이 중국의 『여사서』에 들어 있는 <여범첩목>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중국소설회모본』에는 중국 국적의 서명이 거론되어 있다는 전제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중국소설회모본』 <소서>에 의하면 ‘패관 소사 등 많은 책이 있어 서명을 열거하기 어렵지만 그 가운데 크거나 작게, 정교하거나 조악하게, 허탄하거나 진실되게 세상을 경계하는 것이 있음은 무슨 까닭인가¹³⁾’ 묻고, 이러한 책의 서목을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누었는데 <태원지>는 작은 서목의 책으로 분류되어 있다. 실물인 <태원지>도 4권 4책으로 비교적 적은 분량이다. 이로써

(1973)를 참고하였다.

11) 임치균, 위의 논문. 359~360쪽

12) 김경미, 위의 논문. 204~205쪽

13) [부록]小序, 夫「史書」「六經」及「綱目」「通鑑」「宋鑑」「明史」「綱鑑」諸書 韓·柳·白·李·杜·蘇 諸集 朱子諸書「二程全書」等諸子百家之外 又有稗官少史 等諸書 其名不可勝記 然其中有大小精粗 虛實 警世之 何則 概其條目之大則 曰「開闢演義」曰「涿鹿演義」曰「西周演義」曰「列國志」……曰「皇明英烈傳」曰「續英烈傳」曰「焦史演義」也 其條目之小則 曰「留人眼」曰「西湖佳話」……曰「盛唐演義」曰「太原志」曰「聖經直解」曰「七克」曰「聘聘傳」曰「西廂記」也 其中又有大中小映 曰「西遊記」曰「後西遊記」……曰「感應篇」曰「剪燈新話」也 又有中淫談怪說 曰「艷情快史」曰「昭陽趣史」曰「金瓶梅」……曰「百抄」曰「何潤傳」也 形形色色 鬱鬱葱葱 不可盡喻 其中可鑑可戒者 可笑可愛者 抄集成冊 令繪士主簿金德成等若干人 模本粧冊 開卷歷代事跡 其可瞭然 引書序于首 又作小跋于末 以傳後之子孫 其勿泛看也 夫.

완산이씨 序·김덕성 외 畫, 『中國小說繪模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152쪽

『중국소설회모본』에서 언급한 <태원지>와 낙선재본 <태원지>는 동일한 소설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김용기는 <태원지>에서 볼 수 있는 ‘무자→절손 위기→기자치성→태몽→비범한 인물의 출생’의 형식을 취하는 인물 출생담이 우리 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전형화된 출생담으로 보았다. 그런데 드물기는 하지만 중국 소설인 『금고기관』의 <송금전>, 『선진일사』, 『옥교리』에 기자 치성에 의한 인물 출생담이 나타난다.¹⁴⁾ 그리고 <태원지>가 <장백전>, <유문성전>, <음양삼대성>, <현수문전> 등과 같이 왕조교체 서사를 다루고 있다는 동질성에서 우리 고소설이란 견해를 제시하였다. 특히 <태원지>가 <장백전>, <유문성전>과 같이 비범한 출생담, 제위 욕망, 구왕조의 실정으로 인한 왕조교체의 필연성, 창업주체에 대한 천명부여라는 요소를 갖춘 서사이므로 우리 고소설임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서사의 미묘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견해로 볼 수 있다. <태원지>는 오랑캐가 지배하는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대의를 도모하지는 임응의 뜻에 동조한 임성이 동지를 규합하고 때를 기다리던 중 관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뜻하지 않게 표류하면서 적대세력을 제거하고 태원에 이르러 다섯 나라의 실정을 혐오하는 기존세력의 도움으로 태원을 정복하고 대흥황제로 등극하는 창업서사이다. 임성은 비록 중원이 아닌 태원이지만 역성혁명에 의해 창업주로 등극한다. 선양이나 혈연관계의 계승이 아닌 창업은 정통론을 확보하지 못해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임성은 전조(前朝)의 실정과 천명을 받은 인물이라는 명분으로 합리성을 획득한다. 또한 역성혁명에 성공한 창업주라도 전조에 불만을 품고 전복 의사를 가졌었다는 기미조차 불온한 것으로 여겨 비자발적인 것으로 우회되어 표현되었다. 임성은 서사의

14) 최길용, 『한중 고소설의 인물출생담 비교 연구』, 『고소설연구』 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375쪽 참조

주인공임에 불구하고 결코 스스로 대의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지 않으며, 자신에게 천명이 있다는 사실도 임응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 의해 끊임없이 환기되며, 적대세력과의 대결에서도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임성은 주변인들의 충성과 신뢰를 받으며 대홍왕에 즉위한 다음 신료들이 요청으로 마침내 대홍황제에 등극한다. 역성혁명을 통한 창업은 충격적이며 지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허구서사에서 창업주는 반드시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는 인물이 된다. 임성이 순전한 허구인물로 여겨지지 않은 까닭은 이러한 사실에서 연유한다. 그리고 우리 고소설의 주인공은 스스로 창업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¹⁵⁾ 창업의지를 가졌던 장백과 유문성이 창업을 달성할 수 없는 이유는 천명이 없다는 명분보다 그들이 소설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으로써 창업주가 될 수 있는 인물은 중국역사연의소설에 등장하는 실존인물의 몫이다. 허구라도 역성혁명을 성공시켜 황제로 등극하는 주인공을 갖는 사례란 지극히 불온한 사건이므로 금기시되었다. 그런데 <홍길동전>에서는 주인공 홍길동이 울도국으로 건너가서 기존세력을 제거하고 울도국의 왕에 즉위함으로써 창업의 주역이 된다. 홍길동이 왕으로 등극한 울도국은 변방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왕의 지위 또한 황제 다음 서열인 제후에 해당된다. 이에 홍길동은 조선왕에게 울도국왕이 되었음을 아뢰고 임명의 형식적 절차를 갖는다. 황제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황조의 교체는 정통성이나 천명과 같은 명분이 요구되었음에 비해 왕위와 왕조는 필요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홍길동이 울도국에서 왕조교체를 이룬 것은 역사연의소설이나 <태원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황조교체와는 차이가 있다.

임치균은 <태원지>의 상대적 공간 인식은 조선 후기 북학파의 상대주

15)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276쪽

의적 세계관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였다. <태원지>는 『중국소설 회모본』 <소서>가 1762년에 작성되었으므로 18세기 중반 이전의 작품이다. 조선후기 사상사에서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 일군의 학자들은 북학파로 불리어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북학사상의 형성에 선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홍대용이 중국을 방문한 때는 1765년이며, 홍대용 이후 중국을 방문한 자들이 중화중심을 회의하면서 상대적 세계인식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시기는 18세기 후반이 된다.¹⁶⁾ 문학작품과 당대의 담론이 시간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지만, <태원지>에서 엿볼 수 있는 천문학적 지식과 상대적 공간인식은 조선에서 그러한 담론이 통용되던 시점보다 앞서 있다.¹⁷⁾ <태원지>에는 지구구체설과 중화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상대적 세계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태원지>가 중국 작품이라면 중국에서 이러한 지식과 인식이 당대의 담론으로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일까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태원지> 창작연대의 하한선은 중국소설회모본 소서의 작성 연대인 1762년이다. 그리고 임성 일행을 공격하는 천리안과 순풍이라는 요괴¹⁸⁾에 주목하

16) 유봉학, 『북학사상의 형성과 그 성격: 담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8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2. 1~64쪽

17) 천기철에 의하면 중국 중심 세계관의 해체가 담겨 있는 『직방외기』와 같은 서적이 조선으로 유입되어 이익(1682~1763)을 비롯한 근기 지역 지식인들과 호남의 실학자인 위백규(1727~1798), 황윤석(1729~1791) 등의 세계 인식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익을 제외하고 황윤석은 1758년 이후 직방외기를 읽었고, 위백규는 1768년에 직방외기를 참고하였다는 기록을 남겼다. 천기철, [부록] 『직방외기의 저술 의도와 조선 지식인들의 반응』, 지은이 줄리오 알레니, 옮긴이 천기철, 『직방외기』, 일조각, 2005. 350~365쪽

18) ‘옛 현원묘의 두 요괴 이시니 하나흔 천니안이요 하나흔 순풍이라 천니안은 천니 밧 괴 터럭 솟출 보고 순풍이는 천니 밧 7만흔 소리를 드르니 그 흥하고 요괴롭기 이긋 든지라 녀상이 무왕을 위하야 상 듀를 칠 썩 이 귀거시 흥요작얼하니 녀상이 신법으로써 파하니 요괴 공동의 훗터저 이 싸히 썩러저 썩 변하야 요괴되야 여러 천년을 지닌 고로 흥악흔 요술이 더욱 신통하야 능히 이긋다.’ <태원지>권지이 30a~30b

면 태원지 창작 연대의 상한선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천리안과 순풍이는 봉신연의에도 등장¹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태원지의 출현은 『봉신연의』 이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태원지>의 원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신무전>이 명말에 유행했다는 기록에 의거해 보면 그 창작시기의 상한선은 17세기 중반으로 짐작할 수 있다.²⁰⁾ 결국 <태원지>에 담겨 있는 상대적 세계인식이 당대 담론의 반영이라면 17세기 초·중반 중국인의 세계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진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직방세계 중심의 사고가 통용되어 왔고 중국의 전통적 화이관은 화와 이, 중심과 주변의 구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중국인은 문화가 있는 곳을 중화라고 칭하고 문화가 없는 곳은 이적이라고 칭하였다. 중국인에게는 만, 이, 융, 그리고 적의 네 공동체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남만·북적·동이·서융이라 불렀고, 이들 사방과 가운데에 있는 중국의 오방으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지리학과 우주론은 중국 전래의 천원지방의 우주관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였다. 17세기 초 마테오리치에 의해 제작된 곤여만국전도에는 지구구체설과 오대주설을 다루고 있어 종래의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허물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문화와 위치를 서양의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세계인식의 지평을 제시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²¹⁾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서양 학술 서적들

19) 『봉신연의』에서 천리안과 순풍이는 현원묘에서 흑점호와 나무의 요정들에게 도술을 가르쳐 준다. 안능무 편역 이정환 옮김, 『봉신연의』, 서울, 1999, 224~225쪽

20) 이와 같은 전제는 『중국고전소설총목제요』의 <신무전>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근거로 태원지 서사의 특징을 3절에서 살펴 본 결과 얻은 결론이다. 태원지의 창작시기를 추정하기 위해 3절의 결론을 미리 전제하였다.

21) 이재신,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가 중국인의 공간관에 끼친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

이 나오게 되었는데 특히 알레니가 지은 『직방외기』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예로 들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해체하려 했다.²²⁾ 그리고 직방외기의 내용에 대해 중국인이 쓴 글은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아시아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는 또 천하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 중국 밖의 지역은, 중국이 10이라면 그것의 9배이다. 그런데 이 작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방자하게도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오랑캐라고 하니,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꾸지람을 듣지 않을 수 있겠는가?...더욱이 오랑캐와 중국 사람이 어찌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겠는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충실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사리에 밝고 앞뒤 순서가 바르다면, 비록 멀리 낯선 곳에 있더라도 중화일 것이다. 반면 그곳의 사람들이 도리에 어둡고, 끝 간 데가 없어 갈피를 잡지 못하며,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면 비록 어깨를 맞대고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을지라도 오랑캐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는 곳에 따라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오랑캐나 중국 사람이냐에 따라 땅의 등급을 매겨서 가볍게 헐뜯고 흥볼 수 있겠는가?²³⁾

이는 중국인이 쓴 『직방외기』 <소언>의 내용인데 서양 학술 지식의

원 석사논문, 2008, 55~56쪽

22)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움직이고 멈출 때의 품성을 말한 것이지, 그것의 형태로써 논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땅이 이미 둥글다면, 어느 곳이든 가운데가 아닌 곳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서남북 같은 방향 구분은 사람들이 이 제각기 사는 곳을 기준으로 이름 붙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처음부터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可見天圓地方 乃語其動靜之德 非以形論也 地既圓形 則無處非中 所謂東西南北之分 不過就人所居立名 初無定準), 지은이 줄리오 알레니, 율진이 천기철, 『직방외기』, 일조각, 2005. 56~57쪽

23) 지은이 줄리오 알레니, 율진이 천기철, 『직방외기』, 일조각, 2005. 38쪽

보급은 중국인으로 하여금 중화주의적 사고에서 점차 벗어나게 하였고, 17세기 중반에 창작되었을 <태원지>에도 상대적인 세계인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상에서 <태원지>가 우리 고소설이기 힘든 지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덧붙여 필자가 찾은 『중국고전소설총목제요』의 <신무전>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제시하겠다.

“四卷 未見 撰人을 알지 못함 明 崇禎年間建陽林余氏刊本 위에는 그림이 있고 아래에는 내용이 있음 (路工의 《訪書見聞錄》에 근거한 것임)
劉伯溫이 朱元璋을 도와 천하를 제패하는 이야기이다. 劉伯溫의 신묘한 지략과 기묘한 계책이 突出되었다.”²⁴⁾

위의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신무전>은 4권 분량이며 둘째, 유기가 주원장을 도와 명 창업을 한 과정을 그린 내용으로 유기의 신묘한 지략과 기묘한 계책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셋째, 명 말에 유행하던 작품이며 넷째, 작자를 알 수 없고 작품은 일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무전>에 관해 제시된 정보는 편린에 불과하지만 <태원지> 서사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태원지>와 <신무전>의 연관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태원지> 서사를 자세히 검토하여 그 특징을 밝힘으로써 <태원지>가 중국소설을 번역 내지 번안한 작품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4) 강소성사회과학원 명청소설연구중심회 편; 오순방 외 역,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 제2권,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3~1999, 87쪽

3. <태원지> 서사의 특징

1) 역사적 사실과 환상적 허구의 교직 서사

<태원지>의 시대배경은 원 지정연간이다. 임성은 ‘원나라 지정 을축²⁵⁾ 정월 신묘일’에 임위 부부가 명산에 기자치성을 드린 후 ‘그 해 십월 십육 일 밤’에 탄생한다. 임성은 20세가 되는 ‘갑진년 삼월’에 그를 따르는 호걸들과 함께 관군을 피해 대해에 표류하게 된다. 임성은 이름 모를 섬에 이르러 요괴를 만나 곤란을 겪지만 종황의 신술로 제거한다. 임성은 ‘갑진년 칠월’에 옥새를 얻는다. 임성 일행은 태원에 이른다. 태원에서 만난 평기이의 설명에 의하면 태원 오국은 서로 쟁투하여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임성 일행은 덕재에 의해 태원 오국이 평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²⁶⁾ ‘을사 정월’에 서안국 청능현을 최초로 점령한다. 임성은 서안국을 점령하고 ‘을사 오월’에 홍왕에 즉위한다. 종황은 ‘병오 사월’에 금국 정벌을 위해 출사한다. 임성은 태원 오국을 마침내 평정하여 ‘무신년’에 대흥을 창업하고 황제에 즉위한다. 서사가 진행되면서 언급되는 간지는 지정연간의 간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태원에 이른 종황은 그곳의 원주민인 평기이의 요청으로 중원의 현재 상황과 고금역대흥망사를 간략히 설명한다.

둥원이 처음의 구쥬의 논화 일쥬의 군현이 가히 수백을 헬지라 혹 영웅이

25) 지정연간에는 을축이 없다. 그러나 1325년이 을축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지정연간이 아니다. 필사자가 지정연간의 을유를 을축으로 오기했을 것이라 짐작하는 까닭은 을유야 임성이 20세 되는 해가 갑진에 해당되고, 5년 뒤 대흥을 창업한 무신과 일치한다.

26) 삼년 전의 동외 이서 오국의셔 서로 브르니 왈 ‘다섯 별이 빗줄 합흐미여 응흐미 서방의 잇도다 / 두남기 굽셔미여 큰 집을 일우도다 / 빅성이 평안하기를 심각하미여 덕직의게 들녘다’ 후더라 <태원지>권지이 42a~b

나라나 혹 분_하야 널국이 되며 혹 텨하를 혼일_하야 혼 나라히 되니 나라히
홍망과 세상의 치란이 덧덧_하미 업는지라 즉금은 오랑캐 텨하를 혼일_하야
국호를 대원이라 _하느니 디방인즉 북_하놈의 짜흔 머리 궁그지 못_하고 도
합_하야 혜건디 그 수를 아모 만인 줄 아지 못_하노라²⁷⁾

종황은 현재 중원은 오랑캐가 통치하는 원이 성립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평기이에게 중국의 고금역대홍망사를 설명한다.

호원이 송을 멸_하고 텨하를 통일_하니 이덕의 성_하미 이긋_하니 업는지라
() 대개 삼_하디 이전의는 성_하대명왕과 현상_하양신이 서로 돕는 고로 다스리는
씩는 만코 어_하즈럽는 썩는 적_하더니 삼_하디 이후의는 용_하군암_하주와 난_하신적_하지 서로
텨하를 어_하즈러이는 고로 어_하즈러오미 만코 다스리미 적_하으니 홍_하망_하는 바는
다 도_하적이 이_하시며 업_하스_하미 들_하넛는지라²⁸⁾

종황이 언급한 역대홍망사는 『동몽선습』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
나 명이 원을 멸망시키고 창업한 사실(天厭穢德 大明中天 聖繼神承 於
千萬年 嗚呼 三綱五常之道 與天地 相終始)이 누락되어 있다. 이로 미
루어 <태원지>의 시대배경은 원 지정연간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태원지>의 시대 배경은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까닭은 임성이 대_하홍을 창_하업하고 황_하제로 등_하극하는 시

27) <태원지> 권지이, 37b

28) 胡元滅宋 混一區宇 綿歷百年 夷狄之盛 未有若此者也 (天厭穢德 大明中天 聖
繼神承 於千萬年 嗚呼 三綱五常之道 與天地 相終始) 三代以前 聖帝明王 賢
相良佐 相與講明之 故治日常多 亂日常少 三代以後 庸君暗主 亂臣賊子 相與敗
壞之 故 亂日常多 治日常少 其所以世之治亂安危 國之興廢存亡 皆由於人倫之
明不明如何耳 可不察哉

역주 성백효, 『동몽선습』, 전통문화연구회, 2000, 44~45쪽

점과 원 말 주원장이 명을 창업하고 황제로 등극하는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성이 창업을 하게 되는 과정을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면 주원장이 명을 창업하게 되는 과정과 유사한 면을 가진다. 주원장은 원 천력 무진년(1328)에 출생하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영웅의 기상을 지녔다. 부모가 구몰한 후 곽자홍의 군대에 투신하여 능력을 인정받고, 원이 통치능력을 상실하여 여타군웅할거세력이 우후죽순처럼 봉기하는 와중에 주변의 인재를 모아 자신의 세력을 기르고 점차 영토를 확장해 나가 오왕에 즉위하였다가 무신년(1368)에 명을 창업하고 황제로 즉위한다. 임성과 주원장이 비록 출생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들 모두 원 말 지정연간에 활약했고, 먼저 왕위에 오른 다음 몇 년 뒤인 무신년에 황제로 등극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종황은 임성을 보좌하며 창업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종황은 천상학에 조예가 깊고 천지조화를 부리는 재주를 가졌다. 임성 주위에 모여 든 호걸들은 자신들의 용맹과 종황의 신출귀몰한 묘산으로 당장 원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지만 종황은 원의 천수가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때를 기다리라고 한다. 이에 임성은 종황을 한나라의 개국공신인 장량과 촉나라의 제갈공명보다 나은 인물이라고 칭찬한다.²⁹⁾ 명 창업 과정에서 주원장으로부터 장자방이라 칭해졌으며, 제갈공명에 비견되는 역사적 인물은 유기이다. 유기는 천상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일정한 경지를 이루었다. 유기는 주원장이 천명을 받은 인물임을 알아보았고, 출중한 지모로 강력한 적대세력인 장사성과 진우량을 물리칠 계책을 조언하였고, 민첩한 판단력과 행동으로 위협에 빠진 주원장의 목숨을 구하였다.³⁰⁾ 역사

29) 덕지 왈 미빅의 소견이 턴니의 합당하니 즈방 공명이라도 이에 더오지 못허리로다 내 가히 망동치 아니리라 <태원지> 권지일 7b

30) 基..尤精象緯之學 西蜀趙天宅論江左人物 首稱基 以爲諸葛孔明儔也…基..因見

적 인물인 유기가 제업을 성취할 만한 주원장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것처럼 허구 인물인 종황도 대홍의 창업과정에서 임성을 보좌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태원지>에서 시대배경과 등장인물은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하였지만 임성 일행이 대결해야 하는 상대는 일상적인 존재가 아니며 적대세력을 제압하는 방법 또한 사실적인 전투담이 아니다. <태원지>는 역사적 시기와 인물을 가져와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환상적으로 허구화하고 있다. 해양을 표류하다가 정박하는 섬들에 거주하는 요괴는 기이한 무기와 자연을 초월하는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그 형상은 기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종황은 변화무쌍한 신통력과 환상적인 도술로 절도에 자리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치는 요괴를 제거한다.

(1)용천장군은 복희씨 때에 영도의 신혈에서 나온 이물이다. 신장이 일장 오척이고 쇠로 된 몸, 금빛 눈, 옥 같은 이를 가졌으며 물에도 빠지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으며 짐승을 모조리 잡아먹는다. 용력과 신위를 당할 자가 없어 표풍하여 영도로 들어오는 사람을 겁박하여 사졸을 삼는다. 적을 만나면 손으로 금주를 흔들고 진언을 엮하여 갑자기 천지를 아득하게 하고 비바람 돌 모래를 날려 상대를 혼란에 빠트린다. // 종황은 부채를 흔들어 천지를 맑게 하고 비바람을 그치게 하고 코로 진언을 하여 공중으로부터 수 천 개의 신검을 내려 어지럽게 춤추게 하니 빛이 번개 같아 상대의 기운을 꺾는

太祖 陳天命所在 太祖聞征取計 基曰..士誠自守虜 不足慮 友諒劫主脅下 名號不正 地據上流 其心無日忘我 宜先圖之 陳氏滅 張氏勢孤 一舉可定 然後北向中原 王業可成也...太祖...遂自將救洪都 與友諒大戰鄱陽湖 一日數十接 太祖坐胡牀 督戰 基侍側 忽躍起大呼 趣太祖更舟 太祖倉卒徙別舸 坐未定 飛礮擊舊所御舟 立碎 友諒乘高見之 大喜 而太祖舟更進 漢軍皆失色

장정옥 등 찬, 『명사』12, 권 일백이십팔, 열전 제 십육, 유기, 중화서국, 1974, 3777~3778쪽

다. (권지일 15b~20b)

(2)어느 섬의 자정동에 몇 백년을 살아 요술에 능통한 긴 수염과 새 부리의 생김새를 한 쥐가 모여 있다. 흰 옷을 입은 우두머리는 등에 금줄이 있는 큰 소만한 쥐이며, 나머지 쥐는 꽤지만하다. // 종황은 검은 상자안에 미리 감추어 놓았던 고양이 가죽을 붉은 부적으로 고양이로 변화시켜 요괴 쥐를 제거하고 소혈을 불지른다. (권지일 25b~29a)

(3)어느 섬에 정박하였더니 군사들의 몸이 바위 위에서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간다. // 종황은 세상에서 오래 산 대망이 사람과 짐승을 보면 공중으로 올린 다음 삼키는 수법인 줄 알고 독을 넣은 초인을 날려 보내 대망이 이를 삼키고 죽게 만든다. (권지일 30b~34a)

(4)어느 섬에 정박하였더니 바위 위에서 머리와 수염은 푸른빛이고 눈망울은 검푸르며 생김새는 붉은 빛이고 용모와 목소리가 이상한 사람 모양을 한 원숭이 요괴가 비 바람을 일으키고 독한 안개와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 종황은 독을 탄 술로 원숭이를 제거한다. (권지일 35b~39a)

(5)어느 섬에 정박하였더니 꼬리 셋 다섯 일곱 가진 여우가 몇 천년을 살아 사람의 진액을 빼앗아 여인으로 변용하여 썩은 나무 밑동과 돌무더기를 궁전삼고 해골, 게딱지, 조개껍데기로 금옥그릇을 삼아 일행을 유혹한다. // 종황은 붉은 상자 안에 있던 개가죽에 부적을 붙여 누른 개로 변화시켜 여우를 제거한다. (권지이 7b~8b)

(6)어느 섬에 정박하였더니 갑자기 돌 틈에서 길이는 십여 장이고 황금빛을 한 지네가 붉은 안개 기운을 뿜어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한다. // 종황은 누른 상자 안에서 산을 지고 있는 듯한 등, 구름 같은 날개, 무지개 같은 긴 목, 초생달같은 부리를 가진 누른 닭을 꺼내 크게 울게 하여 지네를 제거한다. (권지이 11a~12b)

(7)어느 섬에 정박하였더니 짐승 모양, 뱀 모양, 뿔 가진 모양, 머리가 세 개인 모양의 해골 귀신이 사람과 바다생명을 잡아먹고 모질고 독한 요괴가 되어 공격해오니 군사들이 이리 저리 다니며 찢러 죽이지만 하나도 죽지 않는다. // 종황은 부체를 한 번 부쳐 음습한 바람을 그치게 하고 소매에서 부

적을 내어 은빛 줄을 만들어 공중에 던져 해골귀신을 잡은 후 제거한다. (권지이 22a~23a)

(8)어느 섬에 정박하였더니 머리와 길이가 엄청나고 주먹이 쇠처럼 강하고 눈망울이 금빛이며, 여상이 무왕을 위해 주를 정벌할 때 요사스러움을 일으키고 횡방을 놓아 여상이 신법으로 제거했던 천리안과 순풍이 환생하여 옥새를 요구한다. // 종황은 옥새를 넣은 상자와 임성에게 스스로 무겁게 하는 부적을 붙이고, 지형을 이용한 천문진법을 배설하여 두 요괴를 제거한다. (권지이 24a~33b)

임성 일행은 대해를 표류하다가 섬에 정박하게 되면 오래 산 짐승이나 이물이 변한 요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요괴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거나 기형괴상을 하고 있다. 종황은 인간 세상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신이한 사건에 부딪치면 초자연적인 술법을 사용하여 해결한다. 종황이 요괴를 물리치는 신법을 발휘할 때마다 임성 일행은 놀라며 ‘신괴묘산’을 사례한다. 그 뿐 아니라 종황은 태원 오국을 평정하면서 수많은 모책, 계교, 그리고 기묘한 진법을 발휘한다. <태원지>에서 사용되는 ‘요괴·이물·괴이’ 등과 같은 단어들은 중국 환상문학의 의미망을 이룩하고 있는 어휘군 가운데 가장 많이 출현하는 글자인 ‘신·기·이·묘’와 겹치고 있다.³¹⁾ 인격화된 동물의 형상으로 출현하는 망망대해의 요괴들과 임성·종황과 같이 역사적 사실에서 변형된 인물들을 활용하여 상상과 환상적 정감으로 엮어내는 창작방식은 신마소설의 창작방식이라 할 수 있다.³²⁾

31) 정재서, 『중국 환상문학의 역사와 이론』, 『중국어문학지』, 8집, 이화중국어문학회, 2000, 139쪽

32) 신마소설은 유·불·도의 세 가르침은 같은 근원이라는 사상의 영향 하에 생산된 것으로서 신마·괴이를 제재로 삼은 백화 장회소설이라는 기본 특징을 가진다. 명대에는 전적으로 환상적인 내용만을 다루는 새로운 창작경향이 일어나 신마소설이 융성하게 되었다. 신마소설의 근원은 신화와 원시종교, 신선 설화와 도교적 사유, 지괴와

결국 임성 일행이 대사를 도모하다가 해양을 표류하면서 만나는 요괴들과 태원에서 맞서게 되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은 원 말에 주원장을 비롯한 영웅호걸들이 여타군웅할거세력을 제거하고 원을 멸망시킨 후 명을 창업한 역사적 사실을 신이하고 기묘한 요소를 동원하여 환상적으로 허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劉伯溫이 朱元璋을 도와 천하를 제패하는 이야기로 劉伯溫의 신묘한 지략과 기묘한 계책이 突出되었다.”는 <신무전>의 설명과 부합한다.

2) 종황의 신묘한 책략이 돋보이는 서사

<태원지>의 주인공인 임성과 관련된 서사는 기자치성으로 출생, 부모와 분리, 위기에 빠짐, 원조자의 도움으로 전투에서 승리, 그리고 가족과 재회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영웅 일대기 서사구조와 유사하다. 그런데 주인공인 임성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직접 해결방법을 강구하거나 실질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고난을 헤쳐 나가지 않는다. 임성은 대해를 표류하다가 절도에 이르자 하늘이 자신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두려워하고³³⁾, 요괴의 부하들이 귀

송·원대의 설화이다. 이 가운데 송·원대의 설화는 설경고사, 소설 속의 영괴류와 강사고사의 영향을 받았다. 강사고사에서 분화되어 나온 신마소설은 역사를 환상화하였다. 기본 줄거리, 주요 인물이 정사에 기록된 바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때로 상상과 환상의 정감으로 일관하거나, 혹은 야사나 사라진 전문에서의 사건을 섞어 이를 통해 역사고사를 환상적으로 만들었다.

제유훈 저 이등연 역, [학술번역]제4장 영웅전기소설 / 제5장 신마소설·개요, 『중국고대소설연변사』, 중국소설연구회보 제44호, 한국중국소설학회, 2000, 25~30쪽 참조

33) 덕지 왈 절도의 표박하야 인적이 업스니 하늘이 우리를 망케 하시미라 이틀 장춧엇지 흐리오 미빅 왈 쥬공은 관심흐쇼셔 아등의 인명이 쏘흔 둥흔지라 황턴이 임의 범연이 너지 야냐 겨시니 엇지 다 죽게 흐리오 반드시 턴의를 기드릴 거시니이다 <태원지>권지일 13a

순해 올 것을 약속하고 빨리 오지 않자 의심하고³⁴, 배가 망망대해로 향하자 불안해하고³⁵, 쥐가 변한 요괴의 공격을 받아 놀랄 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³⁶, 해양에 표류한지 오래되는데도 육지를 보지 못하자 하늘이 자신을 미워해서라며 바다에 뛰어 들어 자결하려고³⁷, 여인국에서 여우요괴가 천하 절색미인인줄 알아 미혹당하고³⁸)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육지를 보자 어떤 요괴가 나타나 괴롭힐지 미리 근심하고³⁹, 금국이 공격해오자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라 한다.⁴⁰ 서두에서 임성은 영웅적 기

34) 님성 왈 츠인(반수 녀의) 등이 오지 아닐가 호노라 미빅 왈 츠인 등이 쏘호 신의 잇고 쏘 옹호지장이며 곁야 전일을 누웃츄니 반드시 실신치 아니리이다 호더라 <태원지>권지일 22b

35) (빅 인세로 향치 아니호고 점점 7업슨 김흔 디로 드러가니) 덕지 심동의 의심호야 좌왜 편치 아니하니 미빅이 위로호야 그 모습을 평안케 호더라 <태원지>권지일 24 b~25a

36) 일빅 군이 간 곳이 업서 사람의 츠최 묘연호거늘 덕지 등이 대경호야 아모란 줄 모르고 가 구코져 호디 불셔 어두어시니 감히 언덕의 오르지 못호더니...덕지 왈 아지 못게라 무슴 요괴 이러듯 신통호노 미빅 왈 .. 황이 불셔 파멸호 묘척을 덩호였는지라 주공은 관심호쇼셔 덕지 심중의 오히려 의심호더니 <태원지>권지일 27a~b

37) 덕지 미비다려 왈 히동의 표류호연 지 불셔 칠팔 삭이 되어시디 세상의 나갈 괴악이 묘연하니 대업을 일으키는 브라지 못하고 몸을 보전호기도 어려운지라 이는 반드시 하늘이 님성을 피이 너기샤 일이 이에 맞게 호미라 날호 인호야 제공이 이긋트 지양을 만나미니 내 맛당이 죽어 제공의게 사례호리라 호고 말을 못츠미 몸을 늘너 바다 흘 향호야 썬여 들너 호거늘 미빅이 급히 붓드려 왈 주공이 엇진 거져시노 <태원지> 권지일 42b~43a

38) 덕지 왈 이는 진짓 텃하 절색미인이로다...미빅이 쥬연당탄 왈 넷 상 뒤 달고의게 미혹호야 요핀 줄 아지 못호고 황음방탕호더니 므츄니 나라흘 망하니 내 일즉 이를 보미 탄석통호치 아닐 적이 업스나 이제 주공 그 요괴를 아지 못하니 만일 나 곳 아니런들 주공이 위티호를 당홀났다 이는 분명호 요괴오 사람은 아니러라 <태원지>권지일 3b~4b

39) 먼니 브라보니 구름 스이의 늑디 형용이 희미히 뵈거늘 덕지 쏘 의심호야 왈 이 쏘 무슴 섬이며 쏘 무슴 요괴 잇는노 미빅이 오리 보다가 대열 왈 내 망고하니 반드시 인세오 요괴 잇는 섬이 아니로다 <태원지>권지일 34b

40) 흥왕이 대경 문왈 무슴 계교로써 적병을 물니칠고 미빅이 디왈 주상은 근심마르쇼셔

상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지만 서사가 진행되면서 대적해야 할 상대를 만나면 영웅적 행위가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나약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임성이 맞닥뜨리는 위기에 맞서 투쟁하는 인물은 종황이다. 종황은 오랑캐가 천하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명주(明主)를 찾기 위해 사방을 다니다가 임성이 천명을 받은 인물임을 알아보고 함께 대사를 도모하기로 결의한다. 그러나 종황은 아직 원의 천수가 다하지 않았음을 알고 대의를 펴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임성에게 조언한다. 관군을 피해 은거해 있던 종황은 임성 일행이 무변대해에 표류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대해에 출현하는 많은 괴이한 짐승과 영물을 파멸할 술법을 준비한다.⁴¹⁾ 종황은 망망대해에서 요괴를 만나면 검은 궤(黑櫃)와 붉은 부적, 붉은 궤(朱櫃)안의 개가죽, 누른 궤(黃櫃)안의 누른 닭, 푸른 궤(靑櫃)안의 두 신장을 그린 화축 등으로 제거한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임성을 위로하고, 궤를 얻어 미래를 예측하고, 신기한 술법을 펼쳐 위기상황을 헤쳐 나간다. 종황은 임성이 자신의 변화무쌍한神通력에 감탄하지 않는 성인이 꺼리는 것이라며 스스로 공을 깎아 신자의 도리를 행하는 덕성을 보인다. 태원에 이르러서는 오국을 정벌하기 위해 직접 출정하여 전투를 전두지휘하고, 음양오행설에 입각하여 현란하게 진법을 배설하고, 적을 교란시킬 계책을 내고, 상대와 협상한다. 태원 오국과의 전투에서 종황은 신기묘산을 발휘하여 임성이 대홍을 창업하는데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종황은 절도에서 만나게 되는 요괴들의 공격을 신술로 모두

신이 임의 계교를 덩혀서니 신이 비록 우용하나 엇지 저 쥐 무리를 두리리잇가 <태원지>권지삼 25b

41) 황이 일죽 드러니 허둥의 고이훈 짐승과 영물이 만타 허미 미리 파멸홀 술을 준비하엿더니 <태원지>권지일 29a

물리쳐 임성을 보호하고, 태원 오국과 대결에서 승리하여 임성을 황제에 즉위하도록 하지만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충성을 맹세한다. <태원지>에서 임성은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인물이라는 당위성으로 창업의 주역이 될 뿐이다. 이에 비해 종황은 광활하게 펼쳐지는 공간에서 변화무쌍한神通력을 발휘하여 정(正)으로 사(邪)를 제압하고 정, 선으로 악을 물리치며 종횡무진한 활약을 펼친다. 결국 <태원지>는 창업주가 되는 임성을 중심으로 보좌하는 종황의 신이한 활약이 돋보이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의 특징은 “劉伯溫의 신묘한 지략과 기묘한 계책이突出되었다.”라는 <신무전>의 설명과 부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원지> 서사가 갖는 특징과 <신무전>에 관한 설명과의 몇 가지 상관성을 고려한다면 <태원지>를 중국소설 <신무전>의 번역 내지 변안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명대 소설인 <신무전>은 어떤 이유로 제명이 <태원지>로 바뀌어 번역되었는지 살펴보겠다.

3. 조선에서의 <태원지> 수용

<태원지>에 관련된 자료나 기록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채 오직 『중국소설회모본』 <소서>에 서명이 거론되어 있고 낙선재에 보관되어 있었다. <태원지>의 서명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중국소설회모본』이 영조 38년 壬午(1762)에 작성되었으므로 <태원지>와 영조와의 유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영조(1694~1776)는 즉위과정에서 혈통의 정통성과 함께 많은 정치적 혼란을 겪었고 사지에 있기도 하였다. 즉위한 영조는 경학과 역사를 공부

하면서 신료들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였고,⁴²⁾ 경연에서 신하들에게 자주 강론하거나 각종 책을 편찬하면서 서문을 친히 저술하였다.⁴³⁾ 특히 1742년, 동몽선습에 어제서(御製序)를 직접 쓰고⁴⁴⁾, 책의 끝 부분에 ‘국초에 개국하고 명 태조로부터 조선이라는 국호를 하사 받은 일에 대해 감회를 일으켰다’⁴⁵⁾고 하였다.⁴⁶⁾

영조는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인 요순을 지향하였지만 실제로는 명 태조가 구축한 강력한 군주체제를 지향하였다. 명 태조(주원장)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제권을 행사하였던 군주였다. 신권(臣權)을 대표하는 중서성을 혁파하는 등 황제권에 도전하는 모든 정치적, 사상적 움직임을 차단하였다. 그리하여 영조는 명 태조가 다른 유가에 비해 유독 황제권 강화를 경계하는 내용이 많은 『맹자』에 대한 반감으로 맹자를 문묘에서 출향한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대보단(大報壇)의 증수를 본격화하고 명 신종, 의종 그리고 태조를 함께 향사하기까지에 이른다. 영조의 명 태조 대보단향사는 단순한 제향의 차원을 넘어, 송시열·권상하 등

42) 이법직, 『영조·정조대 왕실구조 연구』, 『인문과학논총』 제 36집,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72~91쪽

43) 영조대에는 『속대전』 『동국문헌비고』를 비롯한 많은 책이 발간되었는데 영조가 대부분 서문을 친히 지었다. 『자성편』 『효제편』 『표의록』 『팔순유근록』 등 영조가 친히 찬술했던 책 외에도 『속대전』 『속오례의』 『홍무정운』 『자치통감』 『종덕신편』 『근사록』 등 수많은 책을 편찬 간행하면서 서문을 즐겨 썼다. 또한 『동몽선습』의 서문도 직접 썼다. 이회환, 『영조대 탕평책의 실상(하)』, 『전북사학』 제 17집, 전북사학회, 1994, 120쪽

44) 김경미, 『동몽선습의 역사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학』 제 25권 제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3, 21~22쪽

45) 國初開創受號朝鮮之文 慨然追慕 三復興感也 역주 성백효, 『동몽선습』, 전통문화연구회, 2000, 54쪽

46) 태원지에 『동몽선습』이 수용되어 있는 상황도 영조의 이와 같은 관심의 반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노론계 산림들이 화양동 만동묘에서 명의 두 황제를 제사 지내는 권위를 넘어 군주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정치적 의도였다.⁴⁷⁾

영조는 명 태조가 확립한 강력한 군주체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명 태조에 대해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졌던 듯하다. 명 태조가 ‘위태함을 걱정하고 근심스런 마음으로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며 게으르지 않는다(憂危積心 日勤不怠)’라는 글로 부지런했던 일생을 표현하고, 통치계급 내부에서 격렬하게 투쟁하였던 것⁴⁸⁾과 같이 영조는 경연과 금주, 사치금지, 효행 등의 금옥주의적 생활태도에 집착하였다. 그리고 영조는 재위 원년인 1725년 주원장이 명을 창업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중국연의소설 <황명영렬전>을 국문으로 번역(<대명영렬전>으로 제명이 바뀜)하도록 지시⁴⁹⁾하였고, 명 창업 이후 주원장이 강력한 황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남계연담>에 대해 애착을 보였다.⁵⁰⁾ <대명영렬전>은 주원장이 많은 장수와 함께 명을 창업하는 과정의 서사이며 주원장의 탄생에서 홍무 14년까지의 기록이고, <남계연담>은 주원장이 명을 주씨 천하로 굳건하게 확립시키는 과정의 서사이며 시간적 배경은 홍무 3년에서 시작되어 주원장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해당 된다. <대명영

47) 이근호, 『영조의 명 태조 이해와 황단병사』,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473~491쪽

48) 오함 지음 박원호 옮김, 『주원장전』, 지식산업사, 2011, 429쪽

49) 승정원 일기 영조 25년 3월 23일에 “己巳三月二十三日申時 上御歡慶殿 … 上曰, 昔年命故右尹沈廷輔以諺書, 翻譯皇明英烈傳, 而有御製矣 入番儒臣 考出御製以待”라고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 (영조 25년(1749) 演義3월 23일). 원문은 <http://sjw.history.go.kr> 참조.

50) 양승민은 영조실록의 기사에서 영조가 중국행 사신 일행으로 하여금 <남계연담>을 사 오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영조는 소설을 하나의 ‘역대 사적’으로 인식하였기에 명 태조의 창업 과정을 그린 명대의 역사소설인 <대명영렬전>과 <남계연담>을 치세의 귀감으로 삼고자 손수 번역을 명했다고 보았다. 양승민, 『『승정원일기』 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고전문학연구』 제2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280~284쪽

렬전>은 <남계연담>과 시간상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두 작품의 내용을 이어 보면 주원장의 일대기가 된다. 영조가 주원장과 관련된 <대명영렬전>과 <남계연담>에 보이는 관심을 미루어보아 주원장이 명을 창업한 역사적 사실을 환상적 허구로 변형한 <신무전>에도 역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하여 <신무전>을 <태원지>로 번역하도록 하는데 이르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무전>이 <태원지>로 서명이 바뀐 것과 본래의 내용이 번안의 과정을 통해 변화가 발생한 것은 중황으로 유비되는 유기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신무전>이라는 서명보다 임성으로 유비되는 주원장의 창업서사를 훨씬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영조의 주원장에 대한 관심은 <영렬전>, <남계연담>, <태원지>와 같은 주원장 관련 서사에 대한 취합이라는 결과를 낳았을 수 있으며, <신무전>을 번역(안)하는 과정에서 서명이 바뀌도록 하는 데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짐작된다.

4. 결론

본 논의에서는 <태원지>가 우리 고소설로 여겨지는 몇 가지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중국 작품일 수 있는 정황을 밝혀 보았다. <태원지>는 주인공이 역성혁명을 성공시키고 황제로 등극하는 창업서사인데 주인공이 창업주가 되는 경우는 우리 고소설에 전무하며, <태원지>의 서명이 기록된 시점은 『중국소설회모본』 <소서>가 작성된 1762년이므로 <태원지>는 1762년 이전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북학론자들이 개진했던 상대적 세계 인식과 같은 담론이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았겠는 가하는 의문에서 이 논의는 출발하였다. 그리고 『중국고전소설총목제요』

에 실려 있는 <신무전>이라는 작품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태원지> 서사의 특징과 유사한 점을 찾아내어 <태원지>는 중국소설이며, <신무전>을 번역 내지 변안한 작품임을 제안하였다.

조선에서 중국소설인 <신무전>이 유입되고 <태원지>로 번역되었다면, 어떤 연유에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일까? 이 고민에 대해서는 『중국소설회모본』이 영조 대에 이루어진 것에 기대어 설명하였다. <태원지>의 존재는 영조의 주원장에 관한 높은 관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영조는 즉위하는 과정에서 정통성의 시비로 많은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영조는 강력한 군주체제를 지향했던 명 태조에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로 영조는 주원장이 창업에 이루는 과정을 다룬 <대명영렬전>, 창업 이후 명의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남계연담>에 애착을 보였고, 주원장이 명을 창업한 역사적 사실을 환상적 허구로 변형한 <신무전>을 <태원지>로 번역하도록 하는데 이르렀을 것으로 보았다.

<태원지>가 조선시대 작품이라는 근거에 대해 반박하기 힘든 부분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태원지>가 어느 나라 작품인가의 여부에 따라 생산해낼 수 있는 의미망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본 논의에서는 <태원지>가 중국 작품일 수 있는 정황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태원지>가 중국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면, 태원지에 등장하는 임성의 영웅 일대기적 서사와 우리 영웅소설 주인공의 일대기적 서사의 연관성에 대한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류문성전>, 활자본고전소설전집 제5권, 아세아문화사, 1976, 291~363쪽.
- 국립도서관소장본, <옥주호연>단, 경판본 29장본, 고소설판각본전집 제2책, 국학자료원, 1994, 249~263쪽.
- 대영박물관본, <장백전>단, 경판본 28장본, 고소설판각본전집 제5책, 국학자료원, 1994, 753~767쪽.
- 파리동양어학교본, <홍길동전>단, 경판본 29장본, 고소설판각본전집 제5책, 국학자료원, 1994, 1003~1018쪽.
- 임치균 교수, <태원지>,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249쪽.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영이록·태원지』 1973, 1~344쪽.
- 간소성사회과학원 명청소설연구중심회 편 ; 오순방 외 역,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 제2권, 울산대학교출판부, 1993~1999, 1~743쪽.
- 김경미, 『『동몽선습』의 역사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학』 25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3, 7~28쪽.
- 김경미, 『타자의 서사, 타자화의 서사, 홍길동전』, 『고전문학연구』,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185~212쪽.
- 김용기, 『태원지의 서사적 특징과 왕조교체』, 『고소설연구』, 34집, 한국고소설학회, 2012, 187~215쪽.
- 김진세, 『태원지고: 이조후기 사회인들의 Utopia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논문집』, 1·2합집, 영남대학교, 1968, 13~24쪽.
-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한글 번역문제』, 『고소설연구』 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417~455쪽.
- 박재연, 『중국소설회모본』, 강원대 출판부, 1993, 1~281쪽.
- 성백효 역주, 『동몽선습·격몽요결』, 전통문화연구회, 2000, 1~151쪽.
- 양승민, 『『승정원일기』 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고전문학연구』 2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280~284쪽.
- 오 함 지음 박원호 옮김, 『주원장전』, 지식산업사, 2011, 1~524쪽.
- 완산이씨 序·김덕성 외 書, 『中國小說繪模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1~281쪽.

- 유봉학, 「북학사상의 형성과 그 성격 ; 담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Vol 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2, 1~64쪽.
- 이근호, 「영조의 명 태조 이해와 황단병사」,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471~492쪽.
- 이명현, 「태원지의 표류와 정복에 나타난 타자인식」, 14집, 『다문화콘텐츠연구』, 중앙대학교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3, 275~300쪽.
- 이법직, 「영조·정조대 왕실구조 연구」, 『인문과학논총』 제 36집,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71~97쪽.
- 이재신,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가 중국인의 공간관에 끼친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1~135쪽.
- 이희환, 「영조대 탕평책의 실상(하)」, 『전북사학』, 17집, 전북사학회, 1994, 99~127쪽.
- 임치균, 「태원지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 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355~382쪽.
- 장정옥·등 찬, 『명사』12, 권 일백이십팔, 열전 제 십육, 유기, 중화서국국 1974, 3777~3778쪽.
- 정재서, 「중국 환상문학의 역사와 이론」, 『중국어문학지』, 8집, 이화중국어문학회, 2000, 137~147쪽.
- 제유훈 저·이등연 역, [학술번역]제4장 영웅전기소설 / 제5장 신마소설·개요, 『중국고대소설 연변사』, 중국소설연구회보 44호, 한국중국소설학회, 2000, 23~30쪽 .
- 조희웅, 「낙선재본 번역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62·63합집, 국어국문학회, 1973, 257~273쪽.
- 최길용, 「한중 고소설의 인물출생담 비교 연구」, 『고소설연구』 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375쪽.
- 최소자, 「18세기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중국인식」, 『명청사연구』 32집, 명청사학회, 2009, 1~37쪽.
- 허순우, 「중화주의 균열이 초래한 주체의식의 혼란과 극복의 서사: 태원지」, 『고소설연구』 33집, 한국고소설학회. 2012, 215~249쪽.
- 홍현성, 「태원지 시공간 구성의 성격과 의미」, 『고소설연구』 2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291~318쪽.
- 지은이 줄리오 알레니, 옮긴이 천기철, 『직방외기』, 일조각, 2005. 1~384쪽.

ABSTRACT

<TaeWonJi>'s identification by the national narrative analysis

Hwang, Mi-sook

The Origin of <TaeWonJi>, whether it is the work of China or Korea, is not clear.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it is acknowledged as a Korean classical novel. However, there are certain questions existing regarding the novel. This dissertation is written to demonstrate that <TaeWonJi(太原誌)> could have been the work of Chinese. First of all, there had been no protagonist who created the nation in the novel written during the Joseon Dynasty era. Second, because <TaeWonJi> was written before 18th century, it must have been difficult to reflect the relative view of the world which was popular in the late 18th century in Joeseon Dynasty era. Also, there is a mention on Chinese reference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narrative in <TaeWonJi>. While <TaeWonJi> fantasized historical facts and Jong Hwang's amazing magic is narratively standing out, <ShinMuJun(神武傳)> has similar features. The reason why <TaeWonJi> could have been translated into <ShinMuJun> can be explained in relation to King YoungJo. In the late 18th century, King YoungJo wanted establish powerful monarch system that he was interested in Ming Firstking (JooWon-Jang) who sought the system beforehand. In addition, because novel was regarded as a type of history book that it is assumed that together with <DaeMyoungYoungRyulJun> <NamGyeYunDam>, which is related to the Joo Won-Jang, <ShinMuJun> could have been translated into <TaeWonJi>

Key Words <TaeWonJi>, The work of Chinese, <ShinMuJun>, King YoungJo

논문투고일 : 2014. 3. 27

심사완료일 : 2014. 5. 28

게재확정일 : 2014. 6. 2